

2013년 4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

- 일시 : 2013.4.25(목) 15:00~16:30

위원 주요 발언 내용

▲ 북한 관련 보도 신중해야

- 북한뉴스가 심각했으나 보도는 현상적, 단편적. 취재 한계, 정보 한계, 전문가 없으니 알맹이 없는 뉴스라고 생각해. 가치 없는 것은 보도하지 않는 용단 필요해(박영상 위원장)
- 개성공단 인력 인질 가능성, 구출 등 가능치 않는 얘기인데 계속 보도해(박영상 위원장)
- 중국이나 미국 움직임에 대해 얘기하는데 분석은 없어(박영상 위원장)
- 북한 때문에 발생한 주문량 감소 등 기업의 고충 사례로 송파구 오피상 아저씨가 나와. 우리나라 기업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지 의문(박영상 위원장)
- 속보보다는 정확하게 보도해야. 뉴스Y는 맨 마지막에 보도해 중심이 돼야. 북한 보도는 귀납적인 보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(박영상 위원장)
- 뉴스 제목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. 4월 12일 북한 미사일 발사 임박 관측 등의 제목은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불안감을 줘(차경애 위원)

▲ 자막, 영상 등 자료화면 개선해야

- 방송 화면하고 말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 계속 얘기해. 4월 9일, 10일, 11일 박대통령 국 회의장단과 오찬 회동 관련 보도에서 관련 없는 영상이 나와(박영상 위원장)
- 오전 9시 주말뉴스에서 백산, 삼척, 여의도 꽃축제를 보도하면서 자료화면은 전부 여의도만 나가. 또 20일 축제 마지막 절정 보도에서도 여전히 여의도만 나가(이석구 위원)
- 오탈자 나오고 있어. 4월 17일 글로벌Y 대처 전 영국 총리 장례식 보도에서 하단 자막 "'화상' 후에 죽은 남편 옆에 안장"이라고 나와(김정연 위원)
- 재보궐선거 관련해 기자가 말하는 주제와 다르게 계속해서 안철수 캠프 현장만 나와. 맞지 않다고 생각해(차경애 위원)
- 4월 1일 워싱턴 특파원 보도 시 '외교 1차관'을 '외교 1관'으로 잘못 처리해(홍승용 위원)
- 뉴스Y의 경우 뉴스 배경이 다소 세련되지 못해 신경써야(최종준 위원)

▲ 관점을 두고 심층 보도해야

- 박시후, 별장 파티 모임 문제에 대한 계속된 보도가 가치 있는지 의문. 기업 비리

가 연루돼 있다면 그것을 집중 보도해야. 보도할 필요가 있다면 관점이 있어야(박영상 위원장)

- 부산 해운대 발목 뺨 여자 119 치료, 남양주 화재로 재산 피해 등의 뉴스가 얘기 거리가 되는지 의문. 또 119 자료를 그대로 내보내는 것은 시간 때우기같아(박영상 위원장)
- 잘된 인사와 잘못된 인사의 대비 보도를 했으면. 잘된 인사는 채동욱 검찰총장, 잘못된 인사는 OO 장관후보자로 예를 들 수 있어(홍승용 위원)
- 타 방송사의 경우 특정 후보가 청문회에서 답변 태도와 내용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도 뉴스Y는 후보 소견 발표 장면만 반나절 이상 보도해(홍승용 위원)
- 박근혜 정부의 부처 보고와 관련된 심층보도나 전문가 토론 부족. 관계부처 장관들을 출연시켜 관계 전문가와 심층토론 보도하면 좋을 듯(홍승용 위원)
- 세종시 정부 이전 관련, '공무원의 하루'를 보도 해 보라는 지난번 의견 반영 여부 궁금해(홍승용 위원)
-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만 장애인 관련 집중 보도하고 있어. 그 주만이라도 주제 별로 나눠서 심층보도 했으면(이석구 위원)

▲ 용어 사용 개선해야

- 신용카드 "굵어", 음식물을 "섭취한다", 가격이 "저렴하다" 등의 표현 개선해야. 이해가 빠르고 쉽게 쓸 수 있는 말 사용해야(박영상 위원장)
- 남성 앵커가 "철퇴를 가했다"라고 표현했는데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아야(이석구 위원)
- "민주당도 뒤질세라"라는 용어 선택은 객관적인 보도가 아니라고 생각해(차경애 위원)

▲ 라이브 현장 연결 신중하게 해야

- 9시 뉴스 도중 조용필 기자회견을 라이브로 20분 물려. 상업적인 사람인데 중요한 시간대에 뉴스를 끊고 갈 필요까지가 있는지. 오해 소지가 있어(박영상 위원장)
- 통일부 성명 발표 라이브 도중에 질문 답변 부분에서 끊어. 시청자 입장에서는 질문 답변이 매우 중요해. 개선해야(한박무 위원)
- 중국 지진 피해 현장 보도에서 뉴스Y는 기자 목소리만 나와. 반면 YTN은 기자가 현장을 배경으로 리포트 해. 현장을 보여주는 리포트가 더 현장성 있어 보여(이석구 위원)
- 15일 대통령 민주당 회동 관련 보도에서 대한항공 A380 청소하는 것이 나와. 갑자기 끊겨 방송 사고라고 생각해. 속보라는 안내가 나갔어야(이석구 위원)
- 무의미하고 빈번한 현장연결은 사건취재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어(최종준 위

원)

- 미국 텍사스주 비료공장 폭발사고 사건 보도 시 뉴스Y는 보도국에서 전달해. 타 방송사처럼 특파원을 연결하는 것이 현장감과 신뢰감 부여해(최종준 위원)

▲ 인터뷰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균형 갖춰야

- 인터뷰 전에 철저히 준비해야. 서로 전문가가 돼 질문과 답변해 나가야(박영상 위원장)
- 4월 10일 출근길인터뷰 민병렬 후보 편에서는 기자의 질문이 너무 장황해. 질문은 간단하고 대답을 많이 시켜야. 또 기본기가 안돼있는 질문이 많아(김정연 위원)
- 엔저 현상에 따른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이 달라 심층 보도 필요해. 또 반대의 한쪽 소수의견만 인터뷰하는 것은 개선해야(임상혁 위원)
- 현오석 경제부총리 대담에서 질문이 모두 추경, 부동산은 하나만 물어봐 아쉬워(임상혁 위원)
- 정년 연장 찬성 입장으로 민주노총 관련자 인터뷰를 하고 반대는 대학생, 대학원생을 인터뷰해. 치우치지 않은 균형 필요해(임상혁 위원)

▲ 재보궐 선거 방송 좋았으나 더 노력해야

- 재보궐선거 방송에서 YTN은 득표수를 보여줘. 지역 선거에서 득표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. 뉴스Y는 득표율을 보여줘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잘해(한박무 위원)
- 재보궐선거 투개표 방송에서 뉴스Y, YTN도 재보선 선거방송에만 너무 할애하고 있어. 소규모이고 국민들 관심도 적으니 오히려 당, 지역 관련 심층 보도했어야(김정연 위원)
- 부산 캠프에서 김무성 현장 인터뷰하는데 급작스러운 상황이었으나 모양새가 좋아. 이완구 의원도 했으면 하는 아쉬움 있어(김정연 위원)

▲ 보도 내용, 방식 세심하게 신경써야

- 벨기에 특파원이 로마 기사를 내보내고 파리 특파원이 스페인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것은 맞지 않아. 차라리 국제부 기자가 하는 것이 나아(박영상 위원장)
- 서쥬리 앵커는 목소리 톤이 알아(박영상 위원장)
- 20일 오전 9시 담배 값 관련 보도에서 흡연율 자료 화면과 가격을 보여주는데 기자가 언급하는 가격과 자료화면 가격이 달라(이석구 위원)
- 담합 조사가 들어갔다는 보도도 이미 담합한 것처럼 나와. "담합 만연하고 있지만 잘 고쳐지고 있지 않아"라는 멘트도 이미 한 것 같은 오해 소지있어(임상혁 위원)
- 대체 휴일제는 선진국에서는 무급이고 우리나라는 유급. 분석없이 국민들도 좋아하는데 재계만 반발한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은 아쉬워(임상혁 위원)
- 4월 11일 '맹찬형의 시사터치'에서 북한 도발 시 미사일 요격 관련해 두 명 패널

이 격렬하게 대립해. 시청자 눈살 찌푸릴 수 있어. 중재하는 사회자 역할 중요해 (차경애 위원)

- 종편에 자주 출연하는 몇몇 정치평론가는 뉴스Y 출연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. 또 패널에 여성도 많이 나왔으면(차경애 위원)
- 중계할 때 카메라 회전이 너무 빨라 어지러워(차경애 위원)
- 뉴스 앵커 목소리가 많이 울리는 것 같아. 문제점 찾아서 개선해야(차경애 위원)
- 연합뉴스 지방망하고 뉴스Y하고 협력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아. '순천 국내 첫 협동조합 신문 창간' 내용은 커버 안 된 것 같아. 또 보도 방식이 다 다르다 보니 아슬아슬하고 겨우 꾸러간다는 생각이 들어(김정연 위원)
- 뉴스 시간대별 주요 뉴스보도 계획을 1-2시간 전에 사전 소개하면 좋을 듯(홍승용 위원)

▲ 날씨 보도 좀 더 신경썼으면

- 이어진 기상캐스터는 방송 도중 계속 손을 움직여. 시청하는데 거슬려. 뉴스Y 기상캐스터 복장은 타 방송사에 비해 단정하고 좋아(박영상 위원장, 한박무 위원)
- 세계날씨는 속도가 너무 빨라 보려고 하면 지나쳐. 기러기 아빠, 여행자 등을 위해 나라별 주요 여러 도시를 촘촘히 보여줘야(박영상 위원장, 한박무 위원)

▲ 프로그램 차별화, 방송 시간대 등 개선해야

- 종합뉴스에 들어간 것을 블록해서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아. 중요한 것은 심층 리포트, 나머지는 앵커멘트만 해야. 월드클립하고 묶는 것도 고민 필요(한박무 위원)
- '이슈스페셜'은 이슈 선정이 좋아. 그러나 밤 늦게 방송하는 것은 아쉬워(차경애 위원)
- 시청자들에게 의미있는 캠페인 성격을 띠는 프로그램 제작해야(최종준 위원)
- 20-30대를 타깃으로 한 젊고 경쾌한 프로그램 제작해야(최종준 위원)

▲ 긍정적 평가

- 뉴스Y는 지난 1년 동안 고생하면서 장족의 발전해. 최근 확인된 뉴스Y의 최대 강점은 현장 라이브라고 생각하고 뉴스Y를 따를 곳이 없다고 봐. 또 최근 싸이, 북한 이슈 외에도 박노벽 한미원자력협정 협상 전담대사 출근길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. 생방송 잘하면 시청자들에게도 이미지가 구축이 되고 경쟁력도 자동적으로 확보가 돼. 타 방송사와 대적하려면 장점이 있어야 하는데 좋은 무기라고 생각해(한박무 위원)
- 최근에는 CG 많이 사용해.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 대책, 신사참배 관련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서 비판한 내용을 CG로 만든 것은 매우 좋은 편집 보도방식(한박무 위원)

- 북한 미사일 발사, 정부 각료 구성, 미국 보스턴 폭탄테러, 재보궐선거 등 많은 뉴스가 있었는데 뉴스Y는 중계차, 전문가 대담 등을 통해 신속한 보도해(차경애 위원)
- 주말 날씨 나들이 관련 보도에서 날씨랑 야구 관계 엮은 것 좋아(차경애 위원)
- 많은 지인들이 YTN보다 뉴스Y 보도가 질량감에서 우위라는 평가의견 있어(홍승용 위원)
- 조용필 혼, 싸이 흥이라고 표현하며 공연 현장 청중들의 코멘트 등을 양쪽 번갈아가면서 보도한 것은 참 보기 좋아(김정연 위원)
- 지난번 지적으로 북한 전문 기자 복장이 깔끔하게 바뀐 것 같아 보기 좋아(김정연 위원)
- 초기에 비해 앵커들도 자신감이 많아진 것 같아(김정연 위원)
- 뉴스Y홈페이지는 YTN 등과 달리 다시보기를 할 때 광고 없이 바로 볼 수 있어. 시청자 관점에서 더 쉽고 원활하게 뉴스에 접근할 수 있어 장기적인 이미지 개선 및 정보제공의 측면에 치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뉴스Y 포맷은 매우 바람직해(최종준 위원)
- '비즈 토크'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레저, 관광 등 다채로운 분야에 대해 다루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 지향해야. CNN의 'Parts Unknown' 프로그램 참고했으면(최종준 위원)

▲ 기타

- 홈페이지 검색 시 보고싶은 영상자료는 없고 옛날 자료만 나와(한박무 위원)
- 해외 주재 특파원 수를 늘리고 주요 외신과의 MOU 체결 등으로 노하우를 습득해 해외 종합 보도 언론사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야(최종준 위원). (끝).